

민생경제 활성화 · 고용전략 모색

전북도 · 전북연구원, 전북경제포럼 일자리 노동분과 세미나 개최

전북도와 전북연구원이 지난달 30일 전북연구원 컨퍼런스홀에서 전북경제포럼 일자리 노동분과 세미나를 개최했다.

도는 분과별 전문가 토론회로 민생경제 활성화 대안을 마련코자, 전북연구원에 전북경제포럼을 위탁해 운영하고 있다.



전북도와 전북연구원이 지난달 30일 전북연구원 컨퍼런스홀에서 전북경제포럼 일자리 노동분과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일자리 노동분과 세미나에는 원광대 강남호 교수가 좌장을 맡고, 전북도,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한국노동연구원, 전북노동정책연구원, 전장부품기업인 재능전장(주), 전북인적자원개발위원회, 전북연구원 등이 참여했다.

이와 함께, 지역 고용·일자리 분야 최고 권위자인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기조발제를 맡아 전북도 일자리정책 평가와 발전과제에 대해 깊은 논의가 이뤄졌다.

내생적 고용전략 수립이 제시됐다. 특히 이규용 연구위원은 전북의 정책 방향으로는 ▲고용률 61% 상회, 청년 고용률 전국평균과 5%p 이내 축소, 비정규직 40%대 축소 등 고용성표를 제고하고, ▲일자리 지도 구축, 상생협력 모델 발굴, 마중물 상생고용지원금 등을 통해 일자리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올라, ▲저임금 근로자 청년층 고용보조금 지원, ▲중점지원 대상 사업장 선정으로 비정규직 고용구조 개선, ▲자영업·소상공인 경영 개선(HR 컨설팅), ▲노동현안 공론화, 전북형 생활임금제, 특수형태 근로자 사회안전망 가입 지원 등으로 건강한 노동시장의 개선도 강조했다.

특히, 이날 일자리·노동분과에는 민선 7기 일자리정책을 종합 검토해 전북의 고용전략 비전과 핵심 3대 전략(▲미래산업 발전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역균형발전과 지역 공동체 일자리, ▲노동시장 통합과 삶의 질 제고 제시) 및 9개 실행전략이 제시됐다.

먼저 전북이 개선할 일자리 환경으로는 ▲고령화에 따른 청년층 저고용, ▲저임금 구조개선, ▲비정규직 비율 축소, ▲전주·군산·익산·원주 편중에 따른 권역별 격차 완화 등이 진단됐다.

또한 노동분야 과제로는 ▲노동정책 기본계획 마련, ▲노동 전담 행정조직 개편, ▲노동정책 실행기관 신설, ▲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한 노동교육 강화 등이 제안됐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지역일자리 정책으로 ▲기업가 정신 촉진, 도시재생 등 기업활동 촉진정책, ▲기업지원, 산업혁신, 글로벌지원 등 생산성 향상정책, ▲산업·대학의 지식 이전정책, ▲전략업종 선정, 클러스터 개발, 비즈니스 네트워크 등 부문개발정책 등 지역

구체적인 추진과제는 일자리 분야에 ▲일자리정책을 총괄 기획·조정·평가·환류할 수 있는 일자리 통합지원체계 구축, ▲전북 소재 공공·민간 고용 네트워크 활성화, ▲심층상담·진로설계·직업훈련·직중취업알선

이중 후 도 일자리경제정책관은 "전문가 여러분의 생산적 논의를 통해 사업을 구체화하는데 심층 고민하고, 전북도 일자리를 획기적으로 늘려나갈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노동현안 공론화, 전북형 생활임금제, 특수형태 근로자 사회안전망 가입 지원 등으로 건강한 노동시장의 개선도 강조했다.

한편, 다음 달 경제포럼에서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분야, 창의혁신(창업) 분야에서 과제발굴 노력을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유호상 기자

전북형 공유경제 플랫폼 '가치앗이' 알린다

공개모집 통해 선발된 9명 서포터즈 발대식 가져



전북도가 전북형 공유경제 온라인 플랫폼 '가치앗이' 서포터즈 발대식을 전주 동문 청년 리운지에서 지난달 30일 개최했다.

전북도가 전북형 공유경제 온라인 플랫폼 '가치앗이' 서포터즈 발대식을 전주 동문 청년 리운지에서 지난달 30일 개최했다.

이날 발대식에는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된 가치앗이 서포터즈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명장 수여, 서포터즈 활동 간담회 등으로 진행됐다. 정에 요원으로 선발된 서포터즈는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직접 가치앗이 플랫폼을 체험해보고 후기를 공유하는 등 가치앗이 플랫폼을 알리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동비가 지급될 예정이다. '가치앗이'는 공유자원 거래를 할 수 있는 공유장터, 공유자원의 위치를 알려주는 공유지도, 공유자원 거래소인 공유거점, 공유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기업 페이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도민 누구나 회원 가입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창조적인 공유문화 조성, 공유경제 사업화 모델 발굴 등을 위해 학습동아리(10팀), 공유실험실(5팀)을 지원, 이에 대한 정보 역시 가치앗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호상 기자

IT산업 발전 정책발굴 · 공동연구 '맞손'

전북연구원-전북대 JIANT-IT 인력양성사업단, 협약 체결... 인력·정보 교류 등 협력

전북연구원(원장 권혁남)과 전북대 JIANT-IT 인력양성사업단(단장 이지훈)이 전북의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뉴딜 등에 효과적 대응을 위해 지난달 30일 전북연구원 영성회의실에서 학연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전북연구원과 전북대 JIANT-IT 인력양성사업단이 전북의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뉴딜 등에 효과적 대응을 위해 지난달 30일 전북연구원 영성회의실에서 학연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대학과 연구기관, 과학기술과 인문사회간의 상호협력 필요성을 공감하고, 정보공유, 공동연구 등을 통한 지속적 교류 협력을 추진, 향후 전북 IT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선제적 정책발굴이나 지역 인재양성 등 학연협력 체계를 확립하고 그 성과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번 업무협약이 체결되면서 전북대와 전북연구원 간의 교류협력이 더욱 긴밀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권혁남 전북연구원장은 "산업융합 시대에 전북 신산업의 지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지역대학의 우수한 인적, 물적 인프라 활용이 필요하다"며 "전북의 발전을 위해 연구원이 학연협력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지역대학과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도, 음식점 600개소 시설개선 완료

전북도가 안전하고 편안한 외식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55억5천만 원을 투입해 음식점 테이블 교체 등 도내 음식점 600개소의 시설개선을 완료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이 어려워진 외식업소를 돕고 노약자, 장애인, 외국인 등의 이용 편의 제공을 위해 시설개선비로 1개소당 최대 1천만 원을 지원(자부담 30%포함)했다.

지난해 453개소에 이어, 올해 총 225개소 중 147개소의 시설개선을 완료했다.

/유호상 기자

전북도, 집중호우·태풍 대비 위한 해양쓰레기 수거 총력

전북도가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해 매년 발생하는 해양쓰레기 피해 최소화를 위한 선제 대응에 나선다.

도는 도내 연안 해역과 해안가 등에 산재에 있는 해양경관 및 오염의 주원인인 해양쓰레기를 집중호우와 태풍 내습 전 사전 수거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도는 올해 45억여 원을 투입해 강 하구(금강 하구 등)와 바닷가 등 도심지역(개야도, 고군산군도, 연도, 격포 등)을 대상으로 쓰레기를 집중적으로 수거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신규사업인 어촌마을 환경정비 및 국비로 지원되는 바다환경치킴이 사업추진을 통한 상시 수거·처리가 가능한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전담 인력을 확보해 해안가 등 사각지대에 방치된 해양쓰레기를 호우·태풍 내습 전 사전 수거할 예정이다.

또한, 강·하천 집중 호우시 바다로 유입되는 금강 하구 및 인근 도서 지역 해양쓰레기가 신속히 처리되도록

적극 대응에 주력된 쓰레기 발생 증가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김호덕 도 해양청민과장은 "집중호우와 태풍을 막을 수는 없지만, 사전 조치를 철저히 실시해 연례적인 해양쓰레기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번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해양쓰레기를 신속히 수거해 깨끗한 해양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모 집	전주교육대학교·우석대·원광대 군산대·전북과학대 평생교육원	상 담
스피치 · 긴장해소 · 면접 · 웃음코칭		
스피치학의 이론과 실기의 정통기법을 전북에서 최초로 개척한 김양욱입니다. 스피치학, 면접 등 제대로 배울려면 역시 김양욱입니다. 저렴한 등록금, 망설이지 마시고 상담을 기대합니다.		
	> 전담교수 주요경력 < • 전주교육대학교 전담교수 • 전북대학 토론과 면접 담당교수 역임 • 스피치자격시험 감정위원장 • 한국스피치,웅변협회 전북회장 • 전북인재교육원 및 기관, 단체 특강교수 • KBS TV 아침마당, MBC TV, JTV, TBN 출연 및 강의자 • 스피치 칼럼리스트 • 평생교육사 • 심리상담사 • 사회복지사 • 전주매일 부사장	
< 각 지역별 모집 > < 누구나 학습가능함 >		
학교별	주요과정	지역별(자유선택)
전주교육대학교	스피치기법, 스피치지도사(자격증)(야간) 스피치 긴장해소, 스피치웃음코칭(주간)	전주, 임실, 완주
우석대학교	스피치기법, 스피치지도사(자격증)(야간) 스피치웃음코칭(주간)	전주, 완주, 진안
원광대학교(익산)	스피치&긴장해소(야간) 스피치웃음코칭(주간)	익산, 논산, 강경
군산대학교	스피치기법퍼러더립, 스피치지도사(자격증)(야간) 스피치웃음코칭(주간)	군산, 서원, 부안
전북과학대학교(정읍)	스피치지도사(기초,고급,자격증)(야간) 스피치웃음코칭(주간)	정읍, 고창
남원스피치 평생아카데미	스피치기법과 웃음코칭(야간)(웃음자격증)	남원, 장수, 순창
김제스피치 평생아카데미	스피치&웃음코칭(야간)(웃음자격증)	김제, 부안
상담전화 : 285-6676, 231-6669, 010-7304-5665(주,야) ※ 수시 선착순 모집하여 학교별로 개강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